마쓰야마시내 중심부 봇짱열차로 돌아보는 마쓰야마

시키나 소세키,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덜컹 덜컹.
메이지의 그옛날부터 쇼와중반까지 마쓰야마평야의 인기를 독차지했다.
봇짱열차가 21세기의 조카마치에 되살아납니다.

현재의 도고온천 역

쇼와28년경, 요코가와라선 이시테가와 철교를 건너는 봇짱열차

【봇짱열차와 나쓰메 소세키】

[봇짱열차]라는 이름은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[봇짱]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이소설은 소세키가 마쓰야마 중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해 왔을 때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. 그 가운데 주인공 봇짱이 [성냥곽 같은] 작은기차를 타고 부임처인 중학교에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. 그기차야 말로 지금의 [봇짱열차]인 것입니다.

봇짱열차의 촬영포인트는?

- 마쓰야마시역에서는 신기한 차량이 돌아다니고, 오테
- 마치역에서는 시내전철 선로와 교외전철 선로가 교차
-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일본전국에서도 신기한 스포트!

9 시키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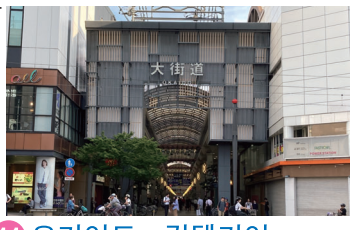
이요철도 마쓰야마시역에서 도보 약 5분, 마쓰야마IC에서 약6Km
마쓰야마시역의 남쪽, 스에히로마치 쇼주지 절 경내에 있는 시키도는 마사오카시키의 구저택을 모방해서 지어졌습니다. 시키도 내부에는 시키 생전의 필적과 유품이 많이 전시되어있고, 경내에는 다카하마 교시 연고의 비가 있어 하이쿠의 거리 마쓰야마만의 풍경을 엿볼 수 있다. 또한 묘지에는 마사오카가의 선대의 묘가 있습니다.

마사오카시키 하이쿠비 (JR마쓰야마역 앞)

시키가 고향 마쓰야마에 돌아왔을 때 읽은 하이쿠입니다. 느긋하고 안온한 흐름은 시키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듯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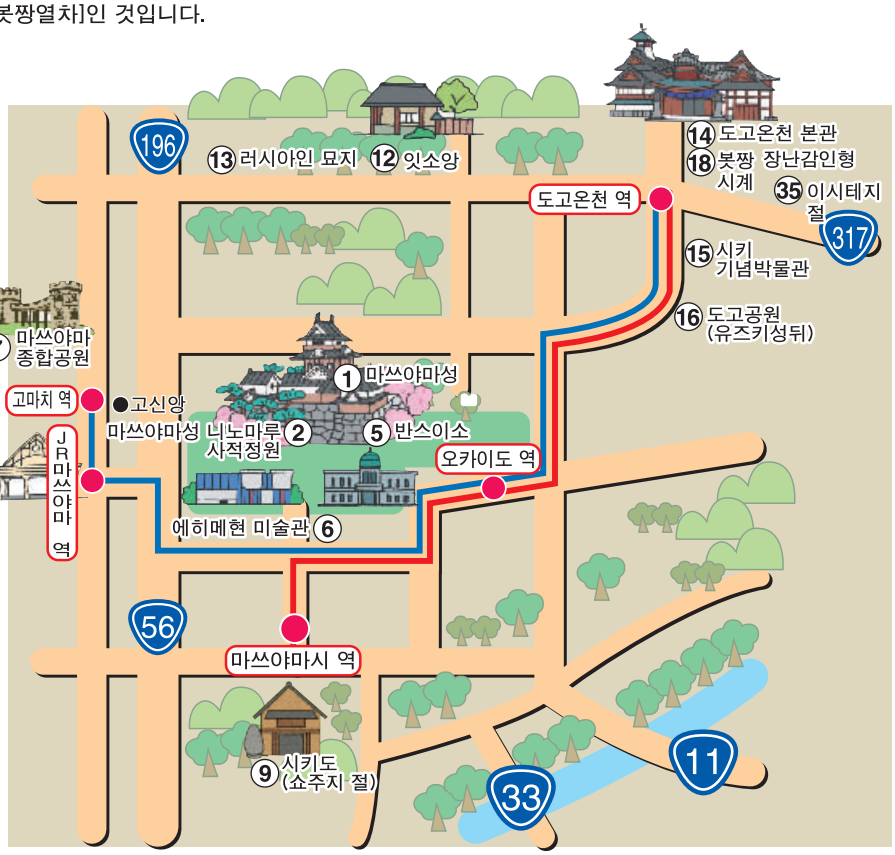
10 대관람차[구루린]

이요철도 마쓰야마시역 근처, 마쓰야마IC에서 약6Km
이요철도 시마야의 옥상에 있는 대관람차. 낮에는 마쓰야마시내를 한번에 볼 수 있고, 밤에는 네온이 정말 화려해 마쓰야마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.



11 오카이도 · 긴텐가이

마쓰야마시역에서 마쓰야마성 로프웨이 타는 곳 근처까지 계속되고, 서일본에서도 큰규모의 상점가입니다.



12 잇소앙

마쓰야마IC에서 약8Km
방랑의 자유률 하이진 (하이쿠를 쓰는사람) 다네다산토카를 끝낸 곳이며 그는 도고온천의 물과 술을 사랑했습니다.

13 러시아인 묘지

이요철도 기야초역에서 도보 약 15분, 마쓰야마IC에서 약 8Km
러일전쟁의 포로 대부분이 마쓰야마시에 수용되어 수용소출입 군관계자 등, 시민들이 잘 보살폈습니다.